

[TV]

TV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channels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program listings. Includes programs like 'KBS 뉴스광장', '생방송 세상의 아침', 'MBC 뉴스투데이', '투유특집 출발! 모닝와이드', '이 땅의 꿈'.

한달간의 약속... 이제 영원한 사랑이 되다

영화특급 '스위트 노벨' (SBS·15일 새벽 1시)



'귀여운 여인'과 '뉴욕의 가을'을 섞어놓은 듯한 익숙한 설정의 멜로 '스위트 노벨'의 매력은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들이다. 추억의 울드팝은 물론 개봉 당시 최신 팝에 이르기까지 매 장면마다 감미로운 선율들로 가득차 있고, 특히 몽환적이고도 서정적인 엔어의 애잔한 보컬의 'Only Time'은 사랑과 별선의 사랑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음악과 더불어 돋보이는 건 영화의 무대가 되는 캘리포니아의 풍광! 샌프란시스코의 가파른 언덕과 낮은 빅토리아풍 건물들, 오래된 케이블카와 아름다운 바다. 11월의 샌프란시스코는 별선과 사랑의 삶과 사랑을 더욱 아름답고 가슴저리게 한다.

량이 아가씨 사랑과 부딪게 된다. 말괄량이에 과져처럼 보이지만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사랑. 한 달에 한 번씩 남자를 바꿔가며 사귀는 그녀는 11월의 연인으로 별선을 선택한다.

TV - 하이라이트

이해고의 폭주 시작되고



대하드라마 '대조영'(KBS1·밤 9시40분)은 이해고의 폭주가 시작되었다. 이해고는 당나라와의 전쟁을 막기 위해 살인귀가 데려가려던 조문해의 머리를 베어버리고, 고구려 유민들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나선다. 또한 당나라로 돌아가는 살인귀에게 자객들을 보내 암살하려하자, 살인귀는 동족인 거란을 이세 적으로 삼게 된다.

사회적 문제와 갈등,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으로서의 장묘문화의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영화 음악과 재즈의 만남

스페이스-공감(EBS·밤 10시) 영화 '대부', '졸업', '디파니에서 아침을', '접속', '살인의 추억'에 흘러나오며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던 추억의 음악들을 재즈로 소화하는 무대. 재즈 밴드 '벤틀레인', 퓨전국악 그룹 '바이날로그', '입담권 쿼텟' 등 여러 밴드의 리더와 연주자들이 만든 '소나기 프로젝트'가 그 추억 여행을 주선한 주인공이다.

가짜 과외 선생 노트

드라마시트 '명문대가 뭐길래'(KBS2·밤 11시15분)는 신용불량자인 작곡가 지망생 명문대는 이름이 같은 친구인 명선생(고백과의 선생) 집에 빌붙어 살던 중 뜻하지 않게 태이의 가짜 과외 선생 노트를 하게 된다. 카드 빛 사체빛을 감을 수 있다는 욕심에 시작했지만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친구 말과는 달리 선생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한데...

'죽어서 갈 곳이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SBS·밤 11시5분)는 '불법 화장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묘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본다. 인위적 장례문화의 변화가 가져다준

초호화 관광지 '팜 아일랜드'



환상의 인공섬, 팜 아일랜드(내셔널지오그래픽·밤 9시)는 '타이완공과 함께 하는 윈터월드...에서'는 아랍 에미리트의 새로운 수입원, '두바이'의 인공섬 '팜 아일랜드'의 건설과정을 파헤쳐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아랍 에미리트의 왕세자 '빈 라시드 알 막툼'은 2016년쯤이면 석유가 바닥나고 아랍의 경제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국가 경제를 위한 새로운 수입원으로 관광사업을 계획한다.

케이블·위성TV

Large table listing TV programs across various channels including YTN, MBN, KTV, SBS, MBC, OCN, and others. Includes program titles, times, and brief descriptions.

PBC 광주주요방송 FM 92.9 MHz / FM 99.5 MHz

BBS 광주불교방송